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투석 방법의 선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학교실

김미정 · 박지은 · 임병국 · 정혁준 · 신규태 · 김홍수

목적 : 최근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말기 신부전증 환자 수는 약 30,000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투석과 이식이라는 신대체 요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환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에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투석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아주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서 말기 신부전증을 진단받고 신대체 요법 중 투석을 결정한 17명을 대상으로 진행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투석을 결정하기 전 모두 외래에서 투석 전담 간호사에 의하여 신대체 요법에 대해 교육을 시행 받았으며, 교육을 시행 받지 않거나 의료진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택할 때 작용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0.2 ± 16.6 세 (24-79세)였으며, 남자는 9명이었다.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 질환은 당뇨병성 신증이 8명 (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 사구체신염 6명 (35%), 고혈압 2명 (12%) 순이었다. 전체 환자에서 11명이 혈액투석으로 결정하였으며, 복막투석의 경우 6명이었다. 연령,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및 동반된 공존질병은 복막투석을 선택한 군에서 의의 있게 낮았다. 그러나 당뇨의 경우 혈액투석을 선택한 군 (63%)에서 복막투석을 선택한 환자들 (17%)과 비교시 더 높았다. 전체 환자 중 53%가 투석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투석 시작 3개월 이내에 결정한 경우는 혈액투석의 경우 7명 (64%), 복막투석은 6명 (100%)이었다. 11명 (65%)의 환자가 신장내과 외래에서 시행한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전혀 신대체 요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환자 중 12명 (71%)의 환자가 투석방법을 선택할 때 교육의 영향을 받았으며, 혈액투석의 경우 11명 중 7명 (64%), 복막투석은 6명 중 5명 (83%)에서 투석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각 투석 방법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는 혈액투석은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다는 점 (33.3%)이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하므로 편리하다 (25%), 복막투석에 대한 걱정 (17%), 배에 관을 삽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부감 (13%)의 순서였다. 복막투석을 선택한 경우 집에서 할 수 있다 (50%)는 것이 가장 큰 선택 요인이었으며, 그밖에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 더 적합하거나 (25%), 혈액투석보다 더 자유롭게 음식물을 선택할 수 있다 (8%)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대부분의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투석 방법을 선택할 때 교육의 역할이 컸으며, 동반 질환이나 경제적 문제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생활 형태나 삶의 질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